

# 개체유형 명사와 동사 ‘하-’의 결합에 관한 생성어휘부 이론적 접근

임서현, 이정민\*

서울대학교

Seohyun Im and Chungmin Lee. 2004. Combination of the Verb *ha-* ‘do’ and Entity Type Nouns in Korean: A Generative Lexicon Approach. *Language and Information* 8.1, 77–100. This paper aims to account for direct combination of an entity type noun with the verb HA- ‘do’ (ex. piano-rul ha- ‘piano-ACC do’) in Korean, based on Generative Lexicon Theory (Pustejovsky, 1995). The verb HA-‘do’ coerces some entity type nouns (e.g., pap ‘boiled rice’) into event type ones, by virtue of the qualia of the nouns. Typically, a telic-based type coercion supplies individual predication to the HA- construction and an agentive-based type coercion evokes a stage-level interpretation. Type coercion has certain constraints on the choice of qualia. We further point out that qualia cannot be a warehouse of pragmatic information. Qualia are composed of necessary information to explain the lattice structure of lexical meaning and co-occurrence constraints, distinct from accidental information. Finally, we seriously consider co-composition as an alternative to type coercion for the crucial operation of type shift.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동사 ‘하-’(verb *ha-* ‘do’), 개체유형 명사(entity type noun), 유형강제(type coercion), 공동합성(co-composition), 특질구조(qualia), 직접기능역(direct telic), 간접기능역(indirect telic), 참여기능역(engagement telic), 개체층위서술(individual level predication)

## 1. 서론

이 논문은 한국어 동사 ‘하-’와 개체유형(entity type) 명사가 결합하는 구성에 관하여 연구한다. 다음 예문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 (1) a. 철수는 택시를 한다.  
b. 철수는 택시 운전을 한다. (직업)

\*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 9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E-mail: {ish97/clee}@snu.ac.kr

문장 (1a)의 해석은 ‘(직업으로서의) 운전’과 같은 표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술어정보를 요구한다. 이러한 동사 ‘하-’류의 구성 - 개체유형 명사와 ‘하-’의 직접적인 결합 - 은 다른 언어들에서도 더 제약적이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 a. John did the chocolate cake for my birthday.

b. Susan-wa sukapu-o si-ta.

S-TOP scarf-ACC do-PAST

‘(lit.) Susan did a scarf’

‘Susan is wearing a scarf’

개체유형 명사와 동사 ‘하-’의 결합에 대해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sup>1</sup>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Jun(2001)이다. 그는 개체유형명사와 동사 ‘하-’의 결합을 화용론적인 문맥추론이 아니라 개체유형 명사의 어휘 의미 특히 특질구조에 근거한 의미 해석으로 설명하였다. 본 논문은 Jun(2001)의 논의를 이어 받아 같은 이론으로 개체유형 명사와 동사 ‘하-’의 결합에 대하여 더욱 발전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sup>2</sup> 우리는 동사 ‘하-’와 개체유형명사의 결합이 그 명사의 어휘의미구조로부터 생략된 술어정보의 도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함을 밝힌다. 개체유형 명사와 동사 ‘하-’의 결합구성의 의미는 개체유형 명사의 특질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유형강제(type coercion) 또는 공동합성(co-composition)과 같은 생성기제를 통하여 도출된다.

## 2. 기저의미유형과 유형강제

### 2.1 동사 ‘하-’의 보어 선택제약: 사건유형 논항

한국어에서 동사 ‘하-’는 대부분 사건유형(event type)의 논항을 목적으로 취한다.<sup>3</sup>

(3) a. 철수는 피아노를 한다.

b. 철수는 피아노 연주를 (전공으로 / 직업으로) 한다.

(3a)가 ‘피아노’와 관련된 술어 ‘연주’의 의미를 이용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관찰은 동사 ‘하-’와 개체유형 명사의 결합이 어떤 행위 즉, 사건유형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드러낸다. 특히 개체유형 명사와 ‘하-’의 결합은 서술명사(predicative noun)로 알려져

<sup>1</sup> 한국어에서 생성어휘부 이론을 이용하여 한국어 어휘 분석을 최초로 시도한 것은 이정민의(2000)이다.

<sup>2</sup> Jun(2001)은 오로지 공동합성으로 개체유형명사와 동사 ‘하-’의 결합구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형적인 유형강제동사 enjoy, begin 등과 같이 동사 ‘하-’가 사건유형의 논항을 취하며, 통사론적으로 다형태성을 갖는 동사로 볼 수 있어 유형강제로 먼저 설명한다. 다만, 다른 유형강제동사들과 다른 차이점들을 고려하여 공동합성에 의한 설명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논의에 넣는다. 유형강제인 공동합성인가의 문제는 동사 ‘하-’의 경동사성 등 통사/의미론적인 기능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sup>3</sup> 이 때 사건이라 함은 개체(entity), 명제(proposition), 사실(fact) 등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단순히 완성(accomplishment)사건, 달성(achievement)사건 뿐만 아니라, 행위(activity)와 상태(state), 상황(situation)까지도 포함한다.

있는 사건유형의 명사가 생략된 경우가 많다. 다음의 예들도 선택제약으로서 ‘하-’가 사건유형의 논항을 목적으로 취하고 있음을 보인다.

- (4) a. 영희는 이 같은 방식으로 밥짓기를 하였다.
- b. 학생들이 교사징계에 대해 시위를 하였다.
- c. 어머니께서는 다리미질을 하고 계십니다.

위의 예에서 ‘밥짓기’는 소위 동사 파생 행위명사이고, ‘시위’는 서술명사이다. ‘다리미질’은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접미사 ‘-질’이 붙어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되는 예이다. 다음의 질문과 답도 이러한 ‘하-’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준다.

- (5) A: 철수야, 너 뭐하니?
- B: 응, 청소.
- \*연필 / \*책상.

(5)에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한 ‘청소’는 행위를 나타내는 사건유형 명사이고, ‘연필’이나 ‘책상’은 개체유형의 명사이다. 다음 예들도 ‘하-’가 사건유형의 논항을 취한다는 것을 보이는 예들이다.

- (6) a. 영희는 빨래를 하고 있다.
- b. 빨래가 물에 젖어서 너무 무겁다.

(6)에서 ‘빨래’는 옷가지를 빼는 행위와 더러워서 빨아야 하는 빨랫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복합유형(complex type)의 명사이다(Im & Lee, 2002 참조). 술어 ‘무겁-’이나 ‘젖-’은 개체유형의 명사와만 결합할 수 있는 동사이므로, 동사의 선택에 의해 (6b)의 ‘빨래’는 개체유형명사로 해석된다. 그러나 ‘빨래’가 동사 ‘하-’와 결합하게 되면 빨래 행위로 해석된다. 이러한 예들을 볼 때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사건유형의 명사를 보어로 취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동사 ‘하-’가 일반적으로 사건유형의 명사를 보어로 취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체유형 명사들은 직접 동사 ‘하-’의 논항으로 쓰인다. 이 구성의 특징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술어정보를 회복시켜 사건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대로는 의미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이 현상을 먼저 유형강제를 통해 설명할 것이다. 다음 정의를 보자.

- (7) 유형강제: 유형 충돌(type error)을 막기 위해 술어가 자신의 논항의 의미유형을 술어가 요구하는 유형으로 전환하는 의미론적 작용.

다시 말해, 유형강제는 어떤 논항을 지배하는 술어가 자신의 선택제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의미유형을 강제하여 유형전이(type shifting)를 시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언급하겠지만, 함수연산자가 되는 술어들은 자신의 논항을 선택하는 데 의미론적 선택제약을 갖고 있다. 즉, 자신이 전형적으로 취하는 의미유형이 있다. 이를 표현하는 표면적인 통사구성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 2.2 통사론적 다형태성과 유형강제

동사 ‘하-’는 (1)에서 본 바와 같이 서술명사구를 논항으로 취하는 구성과 개체유형 명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구성 이 두 가지의 통사론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통사론적 다형태성은 각각 전달하는 의미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심층의 의미유형(deep semantic typing)은 동일하고, 그를 나타내는 통사론적 형태만 변이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Pustejovsky 1995, 2001). 한국어의 슬어 ‘좋아하-’와 ‘하-’를 비교하여 보자. 동사 ‘좋아하-’는 태도동사(attitude verb)이므로, 영어의 like와 같이 모든 유형의 논항을 허가하는 슬어이다.<sup>4</sup>

- (8) a. 철수는 바이올린 연주를 좋아한다.  
 b. 철수는 바이올린을 좋아한다.  
 c. 철수는 바이올린 연주하기를 좋아한다.  
 d. 철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e. 철수는 영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f. 철수는 영희가 바이올린을 연주한 것을 좋아한다.

(8a, c, d, e)는 사건유형의 논항을 취한 예이고, (8f)는 명제유형의 논항을 취한 예이다. 물론 (8b)는 단순히 개체유형의 명사를 논항으로 취한 예이다. 이 때는 생략된 정보도 없고, 해석을 위해 다시 어떤 정보를 회복시켜야 할 필요도 없다. 단순히 철수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좋아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하-’는 ‘좋아하-’와는 다르다.

- (9) a. 철수는 피아노 연주를 한다.  
 b. 철수는 피아노를 한다.  
 c. ?철수는 피아노 연주하기를 한다.  
 d. ??철수는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한다.  
 e. \*철수는 영희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한다.  
 f. \*철수는 영희가 피아노를 연주한 것을 한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동사 ‘하-’는 모든 개체유형명사와 결합을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체유형명사와의 결합을 해석하기 위해 관련된 어떤 슬어정보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좋아하-’와는 선택제약이 다르다. (9b)의 ‘피아노를 하-’는 ‘피아노’

<sup>4</sup> 한국어의 ‘즐기-’는 어떤 일을 즐겨한다는 의미와 어떤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같이 있는 슬어라서 영어의 enjoy보다는 like에 가까운 슬어로 보인다.

의 의미와 ‘하-’의 의미의 단순 합성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b)를 우리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이 문장이 ‘철수는 (전공/직업으로) 피아노 연주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개체유형 명사 ‘피아노’의 특질구조로부터 도출한 술어정보이다. 한국어에서 동사 ‘하-’는 사건 유형의 논항을 전형적으로 취하고, 일부 유형강제가 가능한 개체유형 명사만 논항으로 삼을 수 있다. 2.3에서는 특질구조에 관하여 살펴본다.

## 2.3 명사의 특질구조

**2.3.1 특질구조의 구성.** 특질구조는 어휘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로서 실질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유용한 어휘의미구조이다. 특질구조가 함의하는 바는 어휘의미의 원자론(atomism, Fodor & Lepore 1996)에 반대하고, 어휘의 의미는 추론관계에 의한 하위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생성어휘부 이론은 언어지식(linguistic knowledge)과 세상지식(world knowledge) 즉, 어휘의 사전적 의미와 백과사전적 의미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일부 인지언어학자들의 견해도 반대한다.

Pustejovsky(2001)는 어휘의미는 전통적인 방식의 사전도 아니지만, 또한 모든 데이터를 다 포함시킨 창고와 같은 정보구조도 아니라고 지적한다. 어휘의미구조는 복잡하고, 동적이지만 일관된 지식체계로 문장 의미를 만들어내는 합성을 잘 설명하는 정보구조이어야 한다. 이는 어휘의미구조가 언어의 창조적인 사용을 잘 설명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어휘의미구조에 모든 가능한 정보를 다 담는 방식은 아니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휘의미구조 특히 특질구조에 들어가는 정보는 일정한 한계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커피’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사전적 정보와 백과사전적 정보 기술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 (10) 커피 [연세 한국어 사전]

- ① 독특한 향기가 나며 볶아 갈아서 물에 끓여 차로 마시는, 카페인이 들어 있는 커피나무 열매, 또는 그 가루.
- ② 커피로 만든 차

### (11) 커피 [파스칼 백과사전]

커피나무 열매의 종자인 커피원두를 원료로 한 기호음료.  
음용, 재배, 역사, 종류와 특징, 성분, 생산과 소비, 처리, 추출 방법과 기구, 음용방법 등

백과사전에는 커피에 관한 간단한 기술 외에도 커피의 역사, 성분, 처리, 추출방법 등 많은 정보들이 모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언어학적으로 ‘커피’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성어휘부 이론은 언어의 창조적 사용과 어휘합성을 통한 문장 구성에 대한 설명을 자체의 동기로 갖고 있는 이론이다. 따라서 어휘의미구조는 통사론, 의미론을 포함한 언어학적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특질구조를 기술한다.

- (12) a. 다른 어휘들과의 관계 즉, 반의어, 동의어, 상위어, 하위어 등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b. 다른 어휘들과의 공기제약(co-occurrence constraint) 즉, 의미선택제약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먼저 어휘 존재체계(ontology)내에서 다른 어휘들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존재 체계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많이 언급되어 왔듯이 하나의 어휘항목은 자신의 상위어와 하위어를 가질 수 있고, 반의어와 유의어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들이 격자(lattice)를 구성하는 것이 의미유형격자이다. 즉, ‘맥주’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맥주가 술의 한 종류이며, 그것은 소주나 막걸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어휘의 의미는 그 어휘가 상위어의 의미정보를 계승하고, 다른 어휘가 갖는 의미와 차이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은 ~이다”와 “~은 ~이 아니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보이다. 맥주와 소주는 같은 술이지만,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특질구조가 기술되어야 한다.

(13) 맥주<sup>5</sup>

$$\left[ \begin{array}{l} \text{맥주} \\ \text{논항구조} = \left[ \begin{array}{l} \text{논항}_1 = x: \text{술} \end{array} \right] \\ \text{특질구조} = \left[ \begin{array}{l} \text{형상역} = x \\ \text{구성역} = \text{-가-의-원료(보리엿기름\&홉, x)} \\ \text{-가-의-구성성분(알코올, x)} \\ \text{작인역} = \text{-를-발효시켜-를-만들다(보리엿기름\&홉, x)}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14) 소주

$$\left[ \begin{array}{l} \text{소주} \\ \text{논항구조} = \left[ \begin{array}{l} \text{논항}_1 = x: \text{술} \end{array} \right] \\ \text{특질구조} = \left[ \begin{array}{l} \text{형상역} = x \\ \text{구성역} = \text{-가-의-원료(알코올|곡류, x)} \\ \text{-가-의-구성성분(알코올, x)} \\ \text{작인역} = \text{-를-희석시켜-를-만들다(알코올, x)} \\ \text{-를-발효시켜-를-만들다(곡류, x)}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주’와 ‘맥주’는 구성역과 작인역에 차이가 있다. 또, 만드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구분은 구성역과 작인역으로 충분하다.

<sup>5</sup> Busa, Calzolari, & Lenci(2001)가 특질구조를 확장하여 작인역을 보다 더 구체화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구체화된 작인역 정보를 제시하였다. 또한 Bouillon & Busa(2001)는 삽입된 특질구조(embedded qualia)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생성어휘부 이론의 근본 취지에 잘 맞고 설명력을 높여주므로 (33b)처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질구조의 확대는 제한 없는 확대가 아니라 다른 어휘와 구분되는 어휘의미구조 구성과 언어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정보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용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술이라는 점에서 ‘술’의 특질구조 정보를 상속받아 공통점을 갖지만, 각각 특질구조의 정보에 차이가 있음으로 하여 그 의미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의미유형격자 내에서 상위어로부터 정보를 상속받으면서도 구체적인 특질구조상의 정보의 차이가 단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또 다른 예로 ‘우유’와 ‘커피’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Pustejovsky(2001)는 coffee, milk, beer가 기능역에 의해 의미구분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coffee는 wake\_up, milk는 relax, beer는 refresh 등을 기능역으로 두어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커피, 우유, 맥주가 영어의 단어들이 지시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을 갖는 단어들이라면, 이들의 보다 더 본질적인 차이는 구성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5) 우유

$$\left[ \begin{array}{l} \text{우유} \\ \text{논항구조} = \left[ \begin{array}{l} \text{논항}_1 = x \cdot y: \text{음료} \\ \text{형상역} = x \\ \text{구성역} = \text{-가-의-원료(소젖, } y) \end{array} \right] \\ \text{특질구조} = \left[ \begin{array}{l} \text{논항}_1 = x: \text{음료} \\ \text{형상역} = x \\ \text{구성역} = \text{-가-의-원료(커피나무열매, } x)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16) 커피<sup>6</sup>

$$\left[ \begin{array}{l} \text{커피} \\ \text{논항구조} = \left[ \begin{array}{l} \text{논항}_1 = x: \text{음료} \\ \text{형상역} = x \\ \text{구성역} = \text{-가-의-원료(커피나무열매, } x) \end{array} \right] \\ \text{특질구조} = \left[ \begin{array}{l} \text{논항}_1 = x: \text{음료} \\ \text{형상역} = x \\ \text{구성역} = \text{-가-의-원료(커피나무열매, } x)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우유’와 ‘커피’의 대상물을 구분하는 데에는 구성역 정보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 두 어휘항목을 구분하는 필요조건은 이 음료의 원료가 무엇인가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왜 마시는가 하는 목적 면에서 보면, 위 세 가지 음료를 기능역으로 가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재료에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책상/밥상 또는 검용이 가능하듯이, 문화적,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맥락에 따라 화용론적으로 동원 가능한) Pustejovsky(2001)에 예시된 기능역보다는 좀 더 주된 구성성분의 인과적 효능과 밀착되면서 사용의 주된 목적에 부합되는(예: ‘우유’는 건강완화보다 영양공급; ‘맥주’는 취기 유발) 기능역을 내세워야 더 객관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그의 wake\_up, relax, refresh와 같은 기능 특질이 어휘들의 특질구조에 반드시 속해야 하는 정보인가 하는 점은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는 이 정보들을 특질구조의 기능역에 제시하면서 여러 개의 기능역 설정을 보인다. 이론적으로 기능역 등 특질구

<sup>6</sup> ‘커피’는 식물인 커피나무의 열매를 지시하기도 하고, 커피가루 혹은 커피차를 지시하기도 한다. 어떤 때는 원두커피를 지칭하기도 하며 커피캔,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지시하기도 한다. 인스턴트 커피를 비롯해 커피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칭하는데 ‘커피’가 쓰이므로 그 어휘는 상당부분 총칭적(generic)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는 이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기술하지 않고, 구성역만을 기술하였다.

조의 다중 설정을 가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우유’나 ‘커피’가 다른 어휘들과 구별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각각 ‘긴장 완화’와 ‘각성/긴장’이라는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른 어휘들과의 구분 자체는 이들 없이도 가능하다. 아래 (17d)의 ‘맥주나 (한잔) 하자’에서 명제 해석상 서술적 의미를 복원해주는 [마시기] 위한 것이라는 일차적 기능역은 문법상 필수적이어야 하겠으나, 무엇을 위한 마시기냐 하는 상위 목적이 있어, ‘커피를 한잔 했지만 아직도 졸리다’가 응집성 있게 해석됨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담화/화용론적 차원으로 구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유’의 긴장 완화/커피의 각성/긴장 유발 정보 등과 같은 방식으로 특질구조의 정보를 확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상식적인 것이든 모두 포함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어휘의 의미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 특질구조에 의한 언어의 창조적 사용의 설명은 어휘의미정보라는 그릇 안에 정보를 모두 넣어 설명하려 한다는 것 말고는 화용론의 추론에 의한 의미 해석과 다를 바 없이 되고 말 것이다.

둘째로, 술어와의 공기제약 (co-occurrence restriction)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sup>7</sup> 다음 예문들은 ‘맥주’가 사용된 예들이다.

- (17) a. 나는 맥주를 마시고 / 들이키고 / \*씹고 있었다.  
 b. 맥주 여섯 캔 / 한잔 / \*한 자루  
 c. 그 사나이는 맥주를 좋아했다.  
 d. 우리 저기 가서 맥주나 (한잔) 하자

위의 예들은 일련의 술어들과 공기되고 있는데 이 술어들은 각각 ‘맥주’의 특질구조 정보중 어느 하나와 연결되는 술어들이다. 맥주는 음료이기 때문에 ‘마시-’, ‘들이키-’와 같은 동사가 결합할 수 있다. 또한 ‘캔’, ‘병’, ‘잔’ 등의 분류사도 음료에 쓰이는 분류사이므로 ‘맥주’와 결합한다. ‘좋아하-’는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유형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보어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맥주’와 결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동사 ‘하-’의 경우는 유형강제를 하는 동사이고, ‘맥주’의 특질구조에 근거하여 생략된 정보 - 마시기 -를 다시 복원할 수 있으므로 ‘맥주’와 ‘하-’의 결합은 유형강제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휘의 특질구조는 공기제약과 어휘 의미유형격자 내에서 다른 어휘들과의 관계를 꼭 필요하게 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sup>7</sup> 이러한 공기제약은 선택제약(selection restriction)이며, 이를 선호(preference), 혹은 예측(expectation)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이 공기제약과 관련하여 이운영(2004)은 Pustejovsky(1995)가 제안한 복합유형 명사도 술어의 경우처럼 중점(headedness)을 도입하여 설명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문장에서 이 복합유형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유형 선택자라기 보다는 중점 할당자이다.



**2.3.2 어휘 의미유형 분류.** 생성어휘부 이론에 따른 어휘의미유형은 개체(entity), 질(quality), 사건(event) 영역(domain)으로 구분되고, 각 영역마다 특질구조의 정보 이용방식에 따라 자연유형(natural type), 기능유형(functional type), 복합유형(complex type)으로 구분된다(Pustejovsky, 2001). 또한 어휘의미격자 내에서 의미정보 계승을 하는 방식에 따라 단순유형, 통합유형, 복합유형이라는 분류방식을 도입한다(Pustejovsky 1995, Busa, et al. 2001).

- (18) a. 자연유형(natural type): 형상역과 구성역에 의한 기술
- b. 기능유형(functional type): 기능역과 작인역에 의한 기술
- c. 복합유형(complex type): Dot Object<sup>8</sup> 구성에 의한 데카르트적 유형
- (19) a. 단순유형(simple type): 분류학(taxonomy)에 근거한 기술
- b. 통합유형(unified type): 다중 계승(multiple inheritance)에 의한 의미기술
- c. 복합유형 (complex type):  
       일정한 관계를 갖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어휘 의미기술

위와 같은 분류를 종합하여 한국어 명사의 어휘의미구조의 예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20) 늑대 - 단순유형

$$\left[ \begin{array}{l} \text{늑대} \\ \text{논항구조} = \left[ \begin{array}{l} \text{논항} = x: \text{포유동물} \end{array} \right] \\ \text{특질구조} = \left[ \begin{array}{l} \text{형상역} = x \\ \text{구성역} = .. \\ \text{기능역} = \emptyset \\ \text{작인역} = \emptyset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늑대’는 분류학적으로 겹과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지시한다. 따라서 자연유형이며, 단순유형의 어휘이다. 그러나 다음으로 제시하는 ‘돼지’는 같은 포유동물이지만, 가축용으로 길러 식용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늑대’와는 차이가 있다.

(21) 돼지 - 통합유형

$$\left[ \begin{array}{l} \text{돼지} \\ \text{논항구조} = \left[ \begin{array}{l} \text{논항} = x: \text{포유동물} \cdot \text{가축} \cdot \text{식용동물} \end{array} \right] \\ \text{특질구조} = \left[ \begin{array}{l} \text{형상역} = x \\ \text{구성역} = ... \\ \text{기능역} = \text{-의\_고기를\_먹다}(x) \\ \text{작인역} = \text{-를\_기르다}(x)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sup>8</sup> Pustejovsky(1995)

‘돼지’는 분류학적으로 포유동물에 속하는 자연물이지만, 이것이 가축으로 길러진다는 점에서 작인역의 의미가 부가되고, 식용으로 쓰인다는 점에서는 기능역의 의미가 부가된다. 따라서 다중계승에 의해 그 어휘개념유형은 [포유동물-가축-식용동물]이 된다. 이 어휘의미는 단순유형이 아니라 통합유형이다. 통합유형을 기술하기 위해 ‘.’를 그 기호로 쓴다. ‘돼지’는 기능유형이며, 통합유형이다. 다음으로 복합유형의 예를 보자.

(22) 우유 - 복합유형

$$\left[ \begin{array}{l} \text{우유} \\ \text{논항구조} = \left[ \begin{array}{l} \text{논항} = x \cdot y: [\text{액체} \cdot \text{천연물}] \cdot [\text{가공품} \cdot \text{음료}] \\ \text{형상역} = x \cdot y \\ \text{구성역} = -\text{가} \cdot -\text{의} \cdot \text{원료}(x, y) \\ \text{특질구조} = \left[ \begin{array}{l} \text{기능역} = \text{직접기능역} = -\text{를} \cdot \text{마시다}(x, y) \\ \text{작인역} = 1\text{차작인역} = -\text{가} \cdot -\text{를} \cdot \text{분비하다}(\text{소}, x) \\ \quad \quad \quad 2\text{차작인역} = -\text{를} \cdot \text{가공하다}(x)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우유’는 소젖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먹는 우유는 그 소젖을 가공한 가공품이다. 따라서 우유는 소젖과 그것을 가공한 제품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리고 그 둘은 소젖이 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유를 복합유형으로 설명한다.<sup>9</sup> 반면, ‘젖’은 가공되지 않기 때문에 복합유형으로 기술되지 않는다.

(23) 젖 - 통합유형

$$\left[ \begin{array}{l} \text{젖} \\ \text{논항구조} = \left[ \begin{array}{l} \text{논항} = x \cdot y: [\text{액체} \cdot \text{먹이}] \\ \text{형상역} = x \\ \text{특질구조} = \left[ \begin{array}{l} \text{구성역} = \dots \\ \text{기능역} = -\text{가} \cdot -\text{를} \cdot \text{먹다}(\text{포유동물의 새끼}, x) \\ \text{작인역} = -\text{가} \cdot -\text{를} \cdot \text{분비하다}(\text{포유동물}, x)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이와 같이 어휘개념유형은 자연유형, 기능유형, 복합유형으로 분류되고, 또한 정보결합방식에 따라서 단순유형, 통합유형, 복합유형으로 나뉜다. 다음 절에서는 기능역이나 작인역이 한가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고 복합구조화될 수 있음을 보인다.

**2.3.3 특질구조의 확장.** Pustejovsky(1995)는 기능역을 직접 기능역(direct telic)과 목적 기능역(purpose telic)으로 분류하여 직접 기능역은 어휘의 지시체가 기능역 술어의 대상(object)이 되는 예들을 기술하였고, 목적 기능역은 사용되는 목적을 기술하는 것으로 특히 주어와 도구격의 의미역할(thematic role) 교체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설명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하여 기능역과 작

<sup>9</sup>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가공한 우유는 시유라 하고 가공전의 우유는 원유라 한다.

인역을 확대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기능역과 작인역의 확장만을 다루므로 기능역과 작인역만을 기술한다. 먼저 직접기능역만을 갖는 경우를 보자.

(24) 돼지

$$\left[ \begin{array}{l} \text{돼지} \\ \text{논항구조} = \left[ \begin{array}{l} \text{논항}_1 = x: [\text{포유동물-가축-식용동물}] \\ \text{특질구조} = \left[ \begin{array}{l} \text{기능역} = \text{직접기능역} = \text{-고기를-먹다}(x)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위에서 보듯이 ‘돼지’는 직접기능역을 갖는다. 반면, 다음을 보자.

(25) a. 지현이가 세탁기로 빨래를 하고 있다.

b. 세탁기가 빨래를 한다.

(26) 세탁기

$$\left[ \begin{array}{l} \text{세탁기} \\ \text{논항구조} = \left[ \begin{array}{l} \text{논항}_1 = x: [\text{물리적대상-인공물-도구}] \\ \text{당연논항}_2 = y: \text{세탁물} \end{array} \right] \\ \text{특질구조} = \left[ \begin{array}{l} \text{기능역} = \text{간접기능역} = \text{-가-를-세탁하다}(x, y)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세탁기’는 빨래를 빨기 위한 도구이다. 도구격 조사 ‘-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세탁기’ 자체가 주어가 될 수도 있는 교체현상을 보인다.<sup>10</sup> 그러나 세탁기 자체가 대상이 되는 사건은 작인역에 기술한 세탁기를 만드는 것 말고는 없다. 따라서 직접기능역은 기술할 수 없다. 그러나 세탁기가 어떤 인간의 사용목적을 분명히 가지므로 Pustejovsky(1995)의 목적기능역에 해당하는 의미정보가 특질구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목적기능역이라는 개념이 이 부류에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므로<sup>11</sup> 의미역할 교체현상을 고려하여 간접기능역(indirect telic)을 설정한다.

직접기능역이 없는 어휘들 가운데에는 ‘세탁기’와 달리 교체현상을 보이지 않는 어휘들도 있다. 예를 들어 ‘책상’은 책을 읽거나 글씨를 쓰기 위한 상을 가리킨다. 이때 ‘책상’은 어떤 용도를 갖는 인공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자신이 직접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직접기능역을 갖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세탁기’처럼 교체현상을 보이지도 않으므로 간접기능역이라고 할 수도 없다. 도구의 작용이 대상에 미치지 않고 교체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사용목적이 있는 어휘들의 경우에 이를 참여기능역으로 설정한다.<sup>12</sup> 이제 ‘책상’의 특질구조를 기술하여 보자.

<sup>10</sup> 한국어의 경우 영어만큼 교체현상이 자연스럽지는 않으며, 도구의 의인화를 통해 주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sup>11</sup> Busa, Calzolari, & Lenci(2001)은 직접기능역 외의 사용목적이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어휘 모두를 포함하여 Used\_for의 의미로 목적기능역을 사용하였지만, 교체현상이라는 통사론적 현상을 보이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sup>12</sup> Pustejovsky(1995)는 목적기능역을 설정하였는데 본 논문은 목적기능역을 구분하면서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간접기능역과 참여기능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7) 책상

$$\left[ \begin{array}{l} \text{책상} \\ \text{논항구조} = \left[ \text{논항} = x: [\text{물리적대상-인공물-도구}] \right] \\ \text{특질구조} = \left[ \text{기능역} = \text{참여기능역} = \text{책을-읽거나-글씨를-쓰는데-사용}(x) \right] \end{array} \right]$$

‘책상’은 직접기능역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참여기능역이 있을 뿐이다. 반면 ‘목걸이’의 경우는 직접기능역이 있지만, 교체현상이 없으므로 참여기능역을 제시한 예이다.

(28) 목걸이

$$\left[ \begin{array}{l} \text{목걸이} \\ \text{논항구조} = \left[ \text{논항} = x: [\text{물리적대상-인공물-장식품}] \right] \\ \text{특질구조} = \left[ \begin{array}{l} \text{기능역} = \text{직접기능역} = \text{-를-착용하다}(x) \\ \text{참여기능역} = \text{-로-몸치장을-하다}(x)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목걸이는 목에 거는 것이지만, 그 목적이 몸에 장식을 하는 것으로 장식품의 일종이다. 따라서 참여기능역과 직접기능역을 모두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피아노’는 우선 직접기능역과 간접기능역이 모두 있는 예이다.

(29) 피아노

$$\left[ \begin{array}{l} \text{피아노} \\ \text{논항구조} = \left[ \text{논항} = x: [\text{물리적대상-인공물-악기}] \right] \\ \text{특질구조} = \left[ \begin{array}{l} \text{기능역} = \text{직접기능역} = \text{-를-치다|연주하다}(x) \\ \text{간접기능역} = \text{-가-를-연주하다}(x, \text{음악}) \\ \text{연주}(x: \text{피아노}) \\ \text{사건구조} = \text{사건1} = e1: \text{과정} \\ \qquad \qquad \qquad \text{당연사건2} = e2: \text{과정} \\ \text{특질구조} \\ \text{기능역} = \text{-으로-생계유지}(e1) \\ \text{작인역} = \text{형상역} = \text{연주}(e1, x) \\ \qquad \qquad \qquad \text{작인역} = \text{연주능력습득}(e2, y)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이제 작인역의 확장을 보자. 여기서는 작인역의 확장을 설명하므로 작인역만을 기술 하겠다.

(30) 고등어

$$\left[ \begin{array}{l} \text{고등어} \\ \text{논항구조} = \left[ \text{논항} = x: [\text{물고기-음식재료}] \right] \\ \text{특질구조} = \left[ \text{작인역} = \text{-를-어획하다}(x) \right] \end{array} \right]$$

고등어는 자연물인데 재해석되어 기능역과 작인역이 추가되면서 통합유형이 된 예들이 다. 작인역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휘들이 있다.

(31) 담배

$$\left[ \begin{array}{l} \text{담배} \\ \text{논항구조} = \left[ \begin{array}{l} \text{논항} = x \cdot y = [\text{식물} \cdot \text{원료}] \cdot [\text{물리적대상} \cdot \text{가공품}] \\ \text{특질구조} = \left[ \begin{array}{l} \text{작인역} = 1\text{차작인역} = \text{-를} \cdot \text{재배하다}(x) \\ \text{2차작인역} = \text{-를} \cdot \text{가공하여} \cdot \text{-를} \cdot \text{만들다}(x, x \cdot y)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담배는 원래 식물의 일종이므로 우리가 피우는 담배가 되기까지는 일차적으로 담배를 재배하고, 재배해서 말린 담뱃잎을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 ‘담배’라는 어휘는 식물 담배를 가리키기도 하고, 재배한 담배를 지칭하기도 하며, 가공되어 피울 수 있도록 된 담배를 가리키기도 한다. 다시 말해 ‘담배’는 다의어(polysemy)이다. 이를 복합유형으로 설정하여 술어가 자신에게 맞는 의미를 선택하도록 ‘담배’의 어휘 의미구조를 기술하였다. 담배의 탄생과정은 1차적으로 재배를 하고 2차적으로 그 재배한 담배를 가공하는 것이므로 작인역을 2개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모든 가공품은 이러한 방식의 기술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기능역과 작인역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2) 확장된 특질구조

A. 기능역

a. 직접기능역

어휘의 지시체가 기능역에 제시된 술어가 지시하는 사건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경우

(전형적으로 기능역 술어의 목적어 논항으로 쓰이는 경우이다)

b. 간접기능역

어휘의 지시체가 기능역에 제시된 술어가 지시하는 사건을 위해 사용되는 것들 중 논항교체가 되는 경우 즉,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구, 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c. 참여기능역

어휘의 지시체가 기능역에 제시된 술어가 지시하는 사건을 위해 사용되지만 논항교체가 안 되는 경우.

(사용목적에 있는 모든 인공물중 b를 제외한 나머지 어휘들이 해당한다.)

B. 작인역

어휘의 지시체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과 관련된 사건들을 1차, 2차 작인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질구조를 세분화하여 기술함으로써 어휘의 의미를 잘 정의할 수 있고, 언어현상에 대한 설명의 가능성도 확대된다.

2.4 동사 ‘하-’의 유형강제

이제 위에서 보인 개체유형명사들의 특질구조에 근거하여 동사 ‘하-’의 유형강제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33) a. 철수의 아버지는 택시를 하십니다.

b. 택시

논항구조 =	$\left[ \begin{array}{l} \text{논항}_1 = x: \text{탈것[물리적대상.교통수단]} \\ \text{당연논항}_2 = y: \text{사람} \end{array} \right]$
특질구조 =	$\left[ \begin{array}{l} \text{형상역} = x \\ \text{구성역} = \text{-가-의-부분(네바퀴, 엔진,..., x)} \\ \text{기능역1} = \text{직접기능역} = \text{-가-를(에)-타다(y, x)} \\ \qquad \qquad \qquad \text{간접기능역} = \text{-가-를-나르다(x, y)} \\ \text{기능역2} = \text{직접기능역} = \text{-를-운전하다(x)} \\ \qquad \qquad \qquad \text{운전(x: 택시)} \\ \text{사건구조} = \text{사건1} = e1: \text{과정} \\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text{당연사건2} = e2: \text{과정} \\ \text{특질구조} \\ \text{기능역} = \text{-으로-생계유지(e1)} \\ \text{작인역} = \text{형상역} = \text{운전(e1, x)} \\ \qquad \qquad \qquad \text{작인역} = \text{운전능력습득(e2, y)} \\ \text{참여기능역} = \text{-로-영업을-하다(y)}^{13} \\ \text{작인역} = \text{-를-만들다(x)} \end{array} \right]$

택시의 직접 기능역은 손님 입장에서는 타기 위한 것이고, 운전사의 입장에서는 운전하는 것이지만, 손님은 이동을 위하여 택시를 타고, 운전사는 돈을 벌기 위해 직업으로서 택시 운전을 한다. 택시의 경우 기능역이 두 가지이다. 따라서 동사 ‘하-’가 기능역2의 술어정보를 택하여 유형강제를 하게 된다. 이 때 그 의미는 철수가 택시를 운전한다는 의미만으로 그치지 않고, 택시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위한 돈을 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이유는 ‘택시운전’의 목적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이라는 정보를 취하기 때문이다.<sup>14</sup> 여기서 ‘택시운전’이라는 기능역을 이용하여 기능역 술어의 기능역인 영업 행위에 참여(engage)한다는 주된 술어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기능역 술어들을 단계적으로 추출함으로써 ‘택시를 하-’의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아노를 하다’도 ‘피아노 연주’가 전공 혹은 직업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29)의 ‘피아노’의 특질구조에 근거하여 동사 ‘하-’의 유형강제를 설명할 수 있다. 다만, 단계층위 해석은 지극히 제한된 언어적 맥락에서만 허용되며 이 경우 직접기능역만 동원할 수 있겠다. 기능역의 술어가 직접적인 것이든 좀더 추상적인 것이든 비언어적 맥락의 화용론적 정보가 아닌 어휘의미정보의 생성 메커니즘을 통해 동사구의 의미

<sup>14</sup> 여기서 ‘-로’는 한 명제 안에 쓰이는 도구격과는 달리 술어정보(예: ‘택시 운용’)를 포함한 것이다.

해석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기능역에 있는 술어를 통해 유형강제를 하는 예들을 더 살펴보자.

- (34) a. 우리 아버지는 허리띠 대신 멜빵을 하십니다. (착용)
- b. 우리 어머니는 마스크라를 하십니다. (화장)
- c. 우리 동생은 피아노를 합니다. (연주-전공)
- d. 철수 아버지는 우리 동네에서 세탁소를 하십니다. (운영)
- e. 우리 아버지는 택시를 하세요. (영업+운전)
- f. 저는 평균대를 합니다. (운동)
- g. 선생님께서는 담배 하십니까? (흡연)
- h. 선생님께서는 소주를 하십니까? 맥주를 하십니까? (음주)

위의 예들은 모두 기능역에 있는 술어들을 통해 유형강제를 받는다. 한편, 대부분의 음식 종류는 작인역에 있는 술어를 통해 유형강제한다.

- (35) a. 우리 어머니께서는 밥을 하러 가셨습니다.
- b. 우리 할머니는 떡을 하고 계십니다.
- c. 철수는 (딸)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요.
- d. 양복 한 벌 해 입지 그래?
- e. 우리 마을은 사과를 합니다.

위의 예들은 모두 작인역에 근거하여 유형강제를 받는 명사들이다. 그러나 모든 개체유형의 명사가 모두 ‘하-’에 의해 유형 전이(type shifting)를 강제 받는 것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제약에 대해 살펴보자.

### 3. 유형강제의 제약

지금까지 동사 ‘하-’와 일부 실체명사의 결합을 유형강제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합현상이 모든 명사부류에 다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3장에서는 유형강제나 공동합성과 같은 메커니즘이 적용원리 혹은 제약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첫째, 자연유형의 명사들은 유형강제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동사 ‘하-’와 개체유형 명사의 결합을 특질구조에 근거한 유형강제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모든 개체유형 명사가 동사 ‘하-’에 의해 유형전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개체유형 명사만 동사 ‘하-’의 유형강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유형강제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유형강제에는 제약이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36) a. 철수는 강을 좋아한다.

b. ??철수는 강을 한다.

우리는 첫 번째 제약으로서 ‘강’이나 ‘해’와 같은 부류의 명사들이 동사 ‘하-’의 유형강제를 받을 수 없음을 제시한다. 동사 ‘하-’는 본질적으로 행위와 관련된 동사이므로 개체유형 명사의 지시체와 관련된 인간의 행위를 가정할 수 있어야 그 명사를 논항으로 가질 수 있다. 특질구조에서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는 부분은 기능역과 작인역이다. 결론적으로 기능역과 작인역이 없는 순수한 자연유형의 명사는 재해석되지 않는 한 동사 ‘하-’와 결합할 수 없다.<sup>15</sup> 다른 언어에서와 달리 한국어에서 ‘하-’가 실체명사와 폭넓게 결합하면서도 이 제약은 큰 원리의 성격을 가지고 적용된다.

둘째, 2절에서 제시한 특질구조의 유형 중 직접기능역이 없고 간접기능역이나 참여기능역만 있는 개체유형명사들은 유형강제를 받지 못한다. 다음 예를 보자.<sup>16</sup>

(37) a. ??철수는 세탁기를 했다

b. ??철수는 계산기를 했다

c. ??철수는 책상을 했다

(38) 세탁기

$$\left[ \begin{array}{l} \text{세탁기} \\ \text{논항구조} = \left[ \begin{array}{l} \text{논항}_1 = x: [\text{물리적대상-인공물-도구}] \\ \text{당연논항}_2 = y: \text{세탁물} \end{array} \right] \\ \text{특질구조} = \left[ \begin{array}{l} \text{형상역} = x \\ \text{구성역} = \dots \\ \text{기능역} = \text{간접기능역} = \text{-가-를-세탁하다}(x, y) \\ \text{작인역} = \text{-를-만들다}(x)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위에서 ‘세탁기’, ‘계산기’, ‘책상’은 직접기능역을 갖지 못하는 명사들로 기술하였다. 이들은 간접기능역이나 참여기능역에 제시되어 있는 행위들이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기능역이 있는 명사들과 달리 동사 ‘하-’의 유형강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체층위(individual-level) 상황이 주어진다면 작인역에 의한 해석은 가능할 수도 있다.

<sup>15</sup> 상동사(aspectual verb)도 같은 제약을 받으며 이는 영어나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다.

((1)) a. ??유미는 강을 시작했다.

b. ??Mary began the river.

<sup>16</sup> 물론 (37)의 예들도 더 좁은 문맥이 주어져서 철수가 자영업자이고, 과거시제라 하더라도 과거의 직업을 나타내는 개체층위 서술로 받아들인다면 전혀 해석이 불가능한 문장은 아니다. 그러나 (37)의 예들이 다른 예들보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이 문장들이 필수적인 어휘의미정보에 근거하지 않고, 문맥이 주어졌을 때 해석이 가능한 화용론적 추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석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아서이다.



(39) a. 우리 회사는 세탁기를 합니다.

b. 우리 회사는 컴퓨터를 합니다.

위의 예문들은 동사구의 개체층위의미 해석을 돕는 주어의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이다. 회사이므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이 목적인다고 보면 세탁기나 계산기, 책상이 그 회사들 각각의 주요 상품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 때에는 작인역의 술어정보 - ‘세탁기’의 경우 [작인역 = -를\_제조하다(x)] - 가 주어인 ‘회사’의 어휘의미정보와 결합하면서 ‘우리 회사’가 주로 만들어 파는 상품이 세탁기라는 해석이 된다. 그 경우 단계층위 해석보다는 개체층위 해석이 자연스럽다. 이 예는 주어의 어휘의미 관련성도 고려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택시’의 예처럼 특질구조의 술어의 기능역이 동원된다. ‘택시’와 다른 점은 ‘택시’는 기능역 술어 ‘운전’의 기능역이 ‘생계유지’였지만, ‘세탁기’의 경우에는 작인역 술어 ‘제조’의 기능역이 ‘돈을\_벌-’이다. 주어의 의미해석 참여에 대하여는 4절에서 다시 좀더 자세히 언급한다. 또한 이들은 동사 ‘하-’의 유형강제는 받지 못하지만, ‘즐기-’의 유형강제는 허가한다. 다음 예를 보자.

(40) a. 철수는 세탁기를 즐긴다.

b. 철수는 계산기를 즐긴다.

c. (?)철수는 책상을 즐긴다.

동사 ‘하-’가 직접기능역이 있는 명사들만을 유형강제하는 반면, ‘즐기-’는 직접기능역 뿐만 아니라 그 명사들과 관련된 행위 혹은 사건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위의 예에서 (40a)는 빨래를 할 때 철수는 세탁기로 빨래하는 것을 즐긴다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40b)와 (40c)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동사 ‘즐기-’는 개체유형을 사건유형으로 유형강제한다는 점에서는 동사 ‘하-’와 동일하지만, 그 유형강제의 폭이 동사 ‘하-’보다 훨씬 넓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유형강제를 하는 지배술어(governing predicate)와 개체유형명사의 특질구조에 내포된 술어 사이에 상적(aspectual) 충돌이 있으면 유형강제를 할 수 없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41) a. 철수는 작년에 피아노를 시작했다

b. 영이는 작년에 귀걸이를 시작했다

c. ??영이는 1분 전에 귀걸이를 시작했다  
(착용하는 동작을 가리킬 때)

동사 ‘시작하-’는 완성(accomplishment) 사건이나 행위(activity) 사건유형의 보어를 취할 수 있는 상동사이다. 따라서 (41a)처럼 피아노의 특질구조에 있는 술어 ‘연주’는 행위동사이므로 ‘시작하-’의 유형강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41c)처럼 ‘착용’이

라는 달성(achievement) 동사가 생략된 경우에 ‘시작하-’의 유형강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귀결이의 착용이 하나의 습관으로 해석될 때는 개체층위(individual level) 술어로 해석되므로 행위동사가 되어 ‘시작하-’의 유형강제를 받을 수 있다.

- (42) a. ??철수는 올해 피아노를 끝냈다  
 b. ??영이는 방금 귀걸이를 끝냈다  
 c. 지영이는 어제 책 한권을 끝냈다

상동사 ‘끝내-’는 완성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는 상동사이다. 따라서 행위술어인 ‘연주’가 생략된 (42a)나 달성술어인 ‘착용’이 생략된 (42b)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그러나 (42c)는 다르다. (42c)에 생략된 술어가 ‘읽-’라고 본다면 행위동사이지만, ‘책 한권’이라는 단위 표현을 부가함으로써 ‘책 한권을 읽-’는 완성사건이 되므로 이 동사구는 상동사 ‘끝내-’와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읽-’라는 술어가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책’의 특질구조에 기대어 ‘끝내-’의 유형강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사 ‘하-’는 어떤가? ‘하-’는 사실상 상적인 제약이 없는 동사이다. 따라서 특질구조상의 술어가 어떤 상에 속하든지 유형강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 (43) a. 철수는 피아노를 한다.  
 b. 철수는 칠봉을 한다.  
 c. 철수는 멜빵을 했다  
 d. 어머니가 밥을 하셨다

(43a)는 ‘연주’와 관련된 개체층위 해석이고, (43b)는 행위술어 ‘운동’이 생략된 예이다. 그리고 (43c)는 달성술어인 ‘착용’이 생략된 경우이고, (43d)는 완성술어인 ‘짓기’가 생략된 경우이다. 이처럼 다른 상동사들이 상적제약을 받으며 유형강제를 하는 반면, 동사 ‘하-’는 그러한 상적 제약을 갖지는 않는다.

#### 4. 주어 명사구와 동사구의 합성

일반양화사 이론(generalized quantifier theory)은 주어 명사구가 함수 연산자로서 동사구를 논항으로 취해 전체문장을 도출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우리가 유형강제를 사용한 것은 그러한 일반양화사 이론의 유형전이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문장의 합성에 있어서 동사와 명사구의 결합뿐만 아니라 주어 명사구와 동사구의 합성방식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 (44) a. 영희가 우동을 한다  
 b. 이 식당은 우동을 합니다.

- (45) a. 영희가 김치를 한다.
- b. ??이 식당은 김치를 합니다.

(44b)에서 ‘우동’은 집에서 직접 요리할 수도 있고, 식당에서 팔기도 하는 음식이다. 따라서 ‘우동을 하-’는 일차적으로 ‘우동을 만들다’라는 의미이지만, ‘이 식당’이라는 주어가 결합함으로써 영업상의 ‘판매’의 의미가 추가된다. 그러나 (45)의 경우는 상황이 약간 다르다. ‘김치’는 식당에서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이 아니므로 ‘하-’의 유형강제는 ‘김치를 담그다’라는 의미밖에 도출되지 않고, 요리와 판매라는 정보는 도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식당’이라는 주어가 오게 되면 주어가 요구하는 동사구의 정보와 충돌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에서 (45b)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반면 (45a)의 주어 ‘영희’는 판매를 요리와 함께 요구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김치를 만든다는 의미로 (45a)의 문장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사 ‘하-’가 보어 명사구를 취하여 유형강제한 이후에 주어와 결합하면서 그 의미는 다시 한번 선택되는 과정을 거쳐 전체 문장의 의미가 결정된다(Lee & Im 2003). 다음 장에서는 유형강제에 의한 동사 ‘하-’구성이 개체층위 서술과 단계층위 서술로 분류됨을 보인다.

### 5. 개체층위와 단계층위 서술

‘개체유형명사+하-’ 구성의 유형강제는 특질구조에 근거하는 만큼 그 어휘들의 본질적 속성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특질구조에 의존하는 유형강제는 그 문장의 서술을 개체층위의 서술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다음 예를 보자.

- (46) a. 철수는 바이올린을 한다.
- b. 철수는 바이올리니스트이다.

(46a)에서 ‘바이올린을 하-’는 단계층위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철수의 직업이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46)의 문장들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바이올린’과 같이 기능역에 의거하여 유형강제를 받은 명사들은 특정한 단계층위서술(stage level predication)보다 속성을 나타내는 개체층위 서술로 기우는 경향이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계층위서술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들은 단계층위를 나타내는 어떤 표현이 부가됨으로써 개체층위에서 단계층위 서술로 바뀌는 예들이다.

- (47) a. 우리 어머니는 목걸이를 하십니다.
- b. 영희는 오늘 목걸이를 했다.
- (48) a. 그는 철봉을 합니다.
- b. 그는 오늘 철봉을 했다.

(49) a. 너 담배 하니?

b. 철수야, 지금 담배 한 대 할래?

위의 예문들 중 (a)는 모두 개체층위 서술을 하는 문장들이고 (b)는 모두 단계층위 서술을 하는 문장이다. (b)의 문장들은 (a)와는 달리 양화 표현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능역에 기대어 사건유형으로 강제되는 명사들은 기본적으로 개체층위 서술을 유도하게 되고, 다만 어떤 단계층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공기될 경우에는 단계층위 서술이 가능하다. 물론 현재시제의 표현과 화제표지인 '-는'을 사용하였으므로 더욱이 개체층위 서술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사 '하-'의 기능역에 의한 유형강제를 받는 경우 단순히 현재시제와 화제표지에 의한 개체층위 서술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첫째는 똑같이 동사 '하-'의 유형강제를 받고 화제표지와 현재시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작인역에 근거한 유형강제의 경우는 기본적 해석이 개체층위 서술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이루어지는 행위를 나타낸다고 보는 해석이 일차적이다. 다음 예를 보자.

(50) a. 우리 어머니께서는 밥을 하십니다.

b. 우리 할머니는 떡을 하십니다.

c. 철수는 나무를 합니다.

위의 예문들은 개체층위 서술보다는 단계층위 서술로 더 빨리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물론 이 예문들이 전혀 개체층위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차적으로는 단계층위 서술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현재시제와 화제표지의 사용이 개체층위 서술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기능역에 의거한 유형전이를 하는 명사들과 동사 '하-'가 결합하면 주로 습관이나 취미, 혹은 직업 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작인역에 의존하여 유형전이를 하는 명사들은 위에서 제시한 부류처럼 개체층위서술로 해석되는 것보다는 먼저 단계층위 서술로 해석된다.

## 6. 공동합성의 가능성

우리는 지금까지 개체유형 명사와 결합하는 동사 '하-'를 사건유형 명사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로 보면서 유형강제에 의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동사 '하-'의 유형강제는 전형적인 유형강제 동사들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51) a. 철수는 논문을 시작했다.

b. 철수는 논문을 썼다.

(51) 문장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51a)의 경우 ‘쓰기’ 사건이 강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사 ‘하-’와 개체유형 명사의 결합은 양상이 다르다.

(52) a. 철수는 맥주를 한 잔 하였다.

b. 철수는 맥주를 한 잔 마셨다.

위의 두 문장은 그 의미가 동일하다. 즉, 동사 ‘하-’가 경동사가 아닌 ‘마시-’와 교체 가능하다. 이러한 양상은 ‘시작하-’구문은 사건이 2개이지만, ‘맥주를 한잔 하-’는 사건이 2개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론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53) a. 철수는 맥주 마시기를 하였다.

b. 철수는 맥주를 마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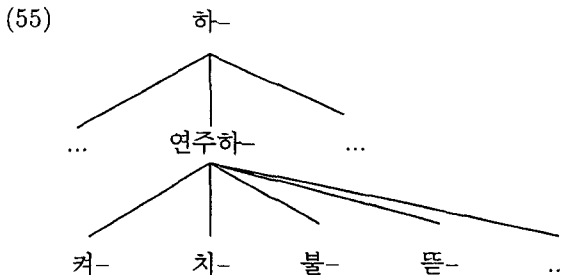
위의 예문들에서 사건은 ‘맥주를 마시다’라는 사건 하나뿐이다. 그러므로 (53a)의 ‘하-’는 경동사성을 띤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다른 유형강제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동사들과 동사 ‘하-’는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개체유형 명사와 동사 ‘하-’의 직접적인 결합에 대한 설명으로서 유형강제와는 다른 설명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음 문장을 보자.

(54) a. 철수가 바이올린을 한다.

b. 철수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55)에서 보듯이 동사 ‘하-’가 다른 동작 동사를 대신하는 포괄동사(generic verb)라고 본다면(김영희 1988, 서정수 1975), 다음과 같은 계층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악기와 관련된 술어들이 위와 같은 계층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Pustejovsky(1995)에서 영어의 use를 사용에 관한 포괄동사로 설명한 것처럼 공동합성으로 설명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동사 ‘하-’는 한국어에서 모든 종류의 동작

을 나타내는 동사를 대신하여 쓰이는 동사이다. 특히 작인역에 의한 해석을 하는 인공물의 예들은 공동합성에 의한 설명의 가능성을 더 크게 한다(독어의 tun은 ‘만들다’). 다만 앞에서 설정한 기능역도 그대로 활용해야 하므로 Pustejovsky(1995)의 공동합성을 확장해야 한다. 미명시(underspecify)된 동작의 ‘하-’가 결합된 실체명사의 작인역/기능역의 술어에 힘입어 완전 명시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해석이 된다. 그러나 공동합성에 의한 이러한 설명은 주로 사건유형(서술명사, 행위명사)의 논항과 결합하는 동사 ‘하-’와 개체유형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하-’의 공통된 본질을 평행하게 보이기 힘들지 않으나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동사 ‘하-’는 모든 개체유형 명사와 결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부 명사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더욱이 다른 언어들에서는 정도 차이가 있지만, 한국어보다 ‘하-’에 대응하는 동사에 제약이 심하다. 즉, 기저 의미유형에서 개체유형 명사를 논항으로 취한다면 like처럼 그 결합제약이 없어야 하지만, ‘하-’는 특질구조와 관련하여 일부명사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유형강제와 공동합성은 ‘하-’의 경동사성/동작동사성의 인정여부 또는 목적어 논항의 기본적인 유형을 무엇으로 잡느냐를 놓고 각각 기술적인(technical) 설명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 결국 의미 해석을 위해 필수적이면서 교량역할을 하는 실체명사의 특질구조의 술어적 특성을 목적어 논항 쪽으로 기울이느냐 아니면 동사 ‘하-’ 쪽으로 기울이느냐의 문제가기도 하다.

## 7. 결론

이 논문은 한국어의 개체유형 명사와 동사 ‘하-’의 결합에 관한 어휘의미론적 연구를 통해 한국어 동사 ‘하-’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개체유형 명사와 결합하는 동사 ‘하-’는 일반적으로 사건유형의 목적어 논항을 갖는 동사이다. 동사 ‘하-’는 기본적으로 기저 의미구조에서 사건유형의 논항을 갖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다형태성을 갖지만, like와 같은 동사들과는 차이가 있다. 동사 ‘하-’에 있어서 개체유형 논항은 동사 ‘하-’의 일반적인 논항이 아니며 표면상으로만 도출되는 것으로, 개체유형명사와 ‘하-’의 결합 구성은 명사의 특질구조에 의거한 의미해석 수준에서 유형강제로 사건유형으로 해석되거나 공동합성으로 뜻이 구체화되어야 통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과정을 Pustejovsky(1995) 등의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2.3절에서는 어휘의미구조로서 특질구조의 속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체유형명사의 특질구조를 분석, 기술하였다. 또한 어휘의 의미를 의의 있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특질구조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확대된 특질구조를 제시하였다. 다른 어휘들과의 구분을 위해 특질구조 내에 구체적 정보를 기술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또한 기능역을 직접기능역, 간접기능역, 참여기능역으로 구분하였다. 작인역도 1차작인역, 2차작인역 등으로 대상의 작인역을 세분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어떤 언어현상은 개체유형명사의 특질구조 내에 있는 술어의 의미구조에 근거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술어의 특질구조까지 기술해야 하는 삽입특질구조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4에서는 동사 ‘하-’의 유형강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개체유형 명사의 특질구조에 근거한 유형강제의 제약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유형강제는 기능유형으로의 해석이 가능한 명사들만 가능하다. 또한 개체유형 명사가 직접기능역을 가질 경우만 유형강제가 가능하다. 즉, 간접기능역 혹은 참여기능역만을 갖는 경우는 동사 ‘하-’에 의한 유형강제가 불가능함을 보였다. 반면 ‘즐기-’는 유형강제의 범위가 좀더 포괄적이어서 간접기능역만을 갖는 개체유형명사들도 유형강제가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강제의 방식으로 해석되는 동사구는 여전히 중의적인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주어 논항의 정보에 의해 더 구체화될 수 있다. 5장에서는 개체유형명사와 동사 ‘하-’의 결합에서 기능역에 의한 유형강제는 일반적으로 개체층위 서술을 도출하고, 작인역에 의한 강제는 단계층위 서술을 도출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다른 어휘들의 첨가에 의해 바뀔 수 있다. 6장에서 우리는 개체유형명사와 동사 ‘하-’의 결합에 관한 대안으로서 공동합성으로의 설명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실체명사와 동사 ‘하-’의 결합에 주목하면서 생성어휘부 이론을 토대로 어휘의미가 문장 합성과정에서 생략된 의미를 해석하는 근거가 됨을 설명하였다. 특히 유형강제에 적용되는 원리를 제시하고 유형강제나 공동합성 등과 같은 메커니즘의 작용에 있어서 술어와 보어 논항뿐 아니라 주어의 어휘의미도 관여한다는 점, 동사 ‘하-’와 실체 명사의 결합의 경우 개체층위 서술과 단계층위 서술을 구분하는 데 실체 명사의 특질구조 정보가 관여한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은 Jun(2001)보다 발전된 것이다.

한국어 동사 ‘하-’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주로 통사론적인 논의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동사 ‘하-’의 기능과 사용, 그리고 특히 실체 명사와의 결합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질구조를 통해 서술화를 체계화할 수 있는 생성 어휘부 이론을 활용하여 어휘의미론적 연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이 어휘의미구조의 정보를 좀더 명확히 함으로써 그러한 연구 논의에 다소나마 기여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영희. 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서울: 탑출판사.  
 서정수. 1975. *동사 ‘하-’의 문법*. 서울: 형설출판사.  
 이운영. 2004. *한국어 명사의 다의적 해석: 생성어휘부 이론에 입각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정민 외. 2000.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서울: 소화 출판사.  
 Busa, F., N. Calzolari and A. Lenci. 2001. Generative Lexicon and the SIMPLE Model: Developing Semantic Resources for NLP, in eds. P. Bouillon and F. Busa. *The Language of Word Mea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dor, J. A. and E. Lepore. 1998. The Emptiness of the Lexicon: Critical Reflections on J. Pustejovsky’s “The Generative Lexicon”. *Linguistic Inquiry* 29.  
 Im, Seo-Hyun and Chungmin Lee. 2002. Type Construction of Nouns with the Verb HA- ‘do’. *the Proceedings of the 16th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 and Computation*. Jeju, Korea.
- Jun, Jong-Sup. 2001. Semantic Co-Composition of the Korean Substantival Noun-ha(ta) Construction: Evidence for the Generative Lexicon. in eds., N. Akatsuka & S. Strauss. *Japanese/Korean Linguistics* 10. CSLI, Stanford.
- Lee, Chungmin and Seo-Hyun Im. 2003. How to Combine the Verb HA- 'do' with an Entity Type Noun in Korean - Its Cross-Linguistic Implications.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Workshop on Generative Approaches to the Lexicon*. Geneva, Swiss.
- Pustejovsky, J. 2001. Type Construction and the Logic of Concepts, in eds., P. Bouillon & F. Busa. *The Language of Word Mea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stejovsky, J. 1995. *Generative Lexicon*. The MIT Press.

접수 일자: 2003년 8월 21일

게재 결정: 2004년 6월 12일